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4. 21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환경복지과
담당	과장 유광조, 공원운영팀장 한정숙, 담당 이정님(032-453-7913)

인천경제청 · 현대제철, 지역 사회 공헌 등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체결

송도 센트럴파크에 철제 공공예술 작품 4점 기부 설치 · 사회공헌 협력 체계 구축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과 김경석 현대제철(주)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H Steel 아틀리에 사회공헌사업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’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협약의 주요 내용은 △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철제 공공예술 작품(4점) 기부·설치를 비롯 △예술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△시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, 사업 진행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이다.
- H Steel 아틀리에에는 현대제철이 사회 책임 활동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다. 협약은 지역 시민·신진 아티스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가치 실현,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.
-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제철은 앞으로 송도 센트럴파크 ‘게일 브릿지’와 ‘GCF(녹색기후기금) 브릿지’ 사이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철제 조형물 4점(신진 작가 3점, 시민 작가 1점)을 설치하게 된다.

- 철제 작품에는 이번 H STEEL 아틀리에 사회 공헌 사업의 주제인 ‘Heritage (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희망)’, ‘Humanity(인간 존중과 사람 중심의 문화)’, ‘Harmony(주변 환경과의 조화)’의 주제를 담는다.
- 인천경제청과 현대제철은 지난 2월 사업 대상지를 센트럴파크로 선정하는데 이어 지난달 작품 공모를 시작했으며 오는 24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하고 제작 설치를 통해 7월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.
- 김진용 청장은 “이번 현대제철의 사회공헌 사업은 센트럴파크를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꾸미고 지역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다